

HP PrintWatch Live 2007

표준형 · 경제형 · 고급형 세분화 소모품 전략 발표



한국HP(대표 최준근)는 지난 6월 8일 부산 해운대 조선포텔에서 'PrintWatch Live 2007' 행사를 갖고 혁신적인 프린터 소모품 전략을 발표함과 동시에 다양한 고객의 인쇄 패턴에 맞춘 소모품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소모품 신제품은 다양한 사용자가 각기 다른 프린팅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을 뿐 아니라, 대용량 출력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최대 40%까지 비용절감 효과를 돌려주는 솔루션들로 구성됐다.

새로운 소모품 전략에 따라 출시하는 레이저 프린터 카트리지 옵션은 프린트 분량이 적은 고객을 위한 표준형 카트리지(파란색), 대용량의 출력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경제형 카트리지(초록색), 사진과 같은 전문성 있는 프린트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고급형 카트리지(빨간색)로 구분된다. 더불어 HP는 초안 품질의 프린트로도 충분한 고객을 위해 절약형인 심플 블랙 카트리지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잉크 구입 시 확인할 수 있는 색상 분류에 따라 신속하게 자신에 적합한 카트리지를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HP는 판매 현장에 잉크 선정 안

내문과 전시대를 비치하고 새로운 판매 방식을 구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매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HP 프린트 카트리지 정품과 프린터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동일 제품명에 XL라는 명칭이 붙는 경제형 카트리지의 대량의 출력물을 인쇄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제품으로 표준형 제품에 비해 3배 이상의 출력이 가능하다.

새롭게 출시될 74XL 카트리지의 경우 표준 HP 74 카트리지 대비 3배 이상 프린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을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 표준 카트리지에 비해 비용을 20% 절감할 수 있는 멀티팩도 공급된다.

이날 행사에서 HP 아시아태평양/일본 소모품 담당 부사장인 존 솔로몬은 "지난 25년간 고객들은 자신의 프린터에 한 종류의 카트리지 옵션만 사용해왔다"며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혁신 기술을 고객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고성능 잉크와 토너, 용지에 들어가는 기술을 혁신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